

전 세계 최고기술자 한자리에 모인다

제12회 삼성국제기능경기대회

‘삼성국제기능경기대회’가 지난 10일부터 3일간 천안시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제1캠퍼스와 삼성전자 수원 디지털시티에서 열린다.

대회는 삼성전자가 기술 인력을 육성하고 발굴하기 위해 2008년 만든 행사다. 매년 열려 12회를 맞았으며, 국내에 계열사와 해외법인 임직원까지 함께 참여한다.

올해에는 삼성전자와 삼성디스플레이, 삼성전기와 삼성SDI까지 4개 계열사가 참가한다. 중국과 베트남 등 12개국 26개 해외법인에서도 170여명이 방한했다.

대회 종목은 ▲자동차시스템 구축 ▲전기제어시스템 제작 ▲제조설비·지그 설계 ▲CNC밀링가공 등에, 올해 새로 로봇티칭·응용프로그래밍을 신설해 5개 종목에서 승부를 겨룬다.

/김재용 기자 juk@



우리다문화장학재단, 결혼이민자 대상 문화강좌

우리금융그룹 우리다문화장학재단은 결혼이민자 등 다문화가족

의 문화수준 향상 및 한국사회 적응을 돕기 위한 결혼이민자 문화강좌 ‘우리아카데미’를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지난 4월부터 진행 중인 ‘우리아카데미’ 1기는 우리은행 신촌지점 2층 우리시니어플러스센터에서 10회에 걸쳐 필라테스 수업과 가족공예 수업으로 진행하고 있다. 또 오는 6월과 9월에는 우리아카데미 2기와 3기를 선발할 예정이다. 선발은 우리다문화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접수 후, 선착순으로 마감한다.

/우리금융



롯데그룹, 제3회 롯데 스타일런 5000명 모집

롯데그룹 유통사업부(백화점, 하이마트, 코리아세븐 등 총 9

개)는 ‘제3회 롯데 스타일런’에 참가할 5000명을 모집한다. ‘제 3회 롯데 스타일런’은 5월 26일 독성 한강공원에서 5km, 10km 코스 두 구간으로 진행된다. ‘롯데 스타일런’에서는 참가자들이 자신의 스타일을 반영한 다양한 복장을 입고 달릴 수 있다.

/롯데그룹



이마트, 취약층 아동에 미세먼지마스크 100만개

이마트가 취약계층 아동 청소년 약 1만명에게 총 100만개의

미세먼지 마스크를 지원한다. 이마트는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과 이재훈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회장 및 이갑수 이마트 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11일 오후 3시 서울시 중구에 위치한 어린이재단 빌딩에서 보건복지부-초록우산 어린이재단과 삼자간 업무 협약을 맺었다. (왼쪽부터) 이갑수 이마트 대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이재훈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회장이 협약을 체결한 후 활짝 웃고 있다.

/이마트



BGF리테일, 2019 베스트 코리아 브랜드 수상

BGF리테일은 세계 최대 글로벌 브랜드 컨설팅 그룹인 인터브랜드(Int

erbrand)가 선정하는 ‘베스트 코리아 브랜드(Best Korea Brands)’에 2년 연속 이름을 올렸다고 11일 밝혔다. BGF리테일은 ‘2019 베스트 코리아 브랜드’에서 지난해(40위)보다 세 계단 뛴 37위에 올랐으며, 브랜드 가치는 약 5201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산출됐다. BGF 민승배 커뮤니케이션실장(오른쪽에서 두 번째) 및 수상자들이 기념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BGF리테일

故조양호 회장 장례, 오늘부터 회사장으로

(한진그룹)

장례기간 12일부터 5일장
빈소는 신촌 세브란스 병원

지난 8일 미국에서 타계한 고(故)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마지막 비행길에 오른다.

한진그룹은 11일 조양호 회장의 운구가 12일 오전 인천 국제공항을 통해 이뤄질 예정이며 빈소는 서울 서대문구 소재 신촌 세브란스 병원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장례는 한진그룹 회사장으로 치러지며, 석대수 한진칼 대표를 위원장으로



故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하는 장례위원회를 구성했다. 장례기간은 오는 12일부터 5일장으로 치러진

다. 조문은 12일 정오부터 가능하다. 발인은 4월 16일 오전 6시이며, 장지는 경기도 용인시 하갈동 신갈 선영이다.

유족들은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장례 전문업체인 포레스트 론에 조 회장 시신에 대한 시신방부처리와 임시 안치, 운구 등을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진그룹 관계자는 “조용히 장례를 치르고자 하는 유가족의 희망을 고려, LA 현지에서부터 장례식장까지의 운구절차는 미공개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돈 갚지 않는 채무자, 고소 가능할까?



안 선 영 변호사의
사건 파일

Q : A는 2000년에 설립된 건설회사의 대표이사이고, B는 A에게 자재를 납품하는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B는 A에게 2014년부터 자재를 납품하거나 사업자금을 대여해 왔고, 그간 A는 B에게 자재대금의 지급이나 차용금의 변제를 제 때 해 왔다. 그런데 2018년 초 A가 진행하고 있는 공사의 발주자가 A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정이 발생하였고, 이로써 A의 자금 운영이 원활하지 못하게 되었다. 이에 A는 2018년 8월 무렵 B에게 사정을 설명하면서 ‘발주자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으면 곧 갚겠다’며 2억 원을 빌렸다. 그러나 A는 결국 발주자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 2018년 12월 무렵 A가 발행한 당좌수표에 대해 예금부족을 이유로 지급정지처분을 받았고, 2019년 1월에 파산신청을 하여 파산선고를 받았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B는 ‘A가 B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기 때문에 B로부터 빌린 돈을 갚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며 A를 사기죄로 고소하였다. A는 사기죄로 처벌될까?

A :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착오에 빠진 피해자로 하여금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및 이들 행위 사이의 인과관계가 있

야 한다.

그리고 금전 거래에서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는 거래행위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므로, A가 돈을 빌릴 당시에 변제할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면, 비록 그 후에 A가 빌린 돈을 변제하지 않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불과할 뿐 형사상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한편 사기죄의 구성요건으로서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소극적 행위로서, 일반거래의 경험칙상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다면 법률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한 경우 상대방에게 그 사실을 고지할 법률상 의무가 인정되고, 법률상 고지의무 있는 자가 상대방이 일정한 사실에 관하여 착오에 빠져 있음을 알면서도 그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라면 부작위에 의한 기망이 인정 된다(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참조).

그러나 이 사안에서 B는 A와 상당기간 거래를 해 온 자로서, A에게 2억 원을 대여할 당시 A로부터 ‘공사 발주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해 자금 운영이 원활하지 못하다’는 사정을 들었기 때문에 A의 자금사정이 좋지 못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고, A가 공사 발주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할 경우 2억 원을 변제하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을 예상하거나 예상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A가 B에게 2억 원을 차용할

당시 A의 구체적인 변제 의사, 변제 능력, 거래조건 등 거래 여부를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사항을 허위로 말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없다면, A가 그 후 B에게 2억 원을 변제하지 못하였다는 사실만 가지고 A가 A의 변제능력에 관하여 B를 기망하였다거나 A에게 사기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2도14516 판결 참조).

심지어 대법원은 자금난을 겪고 있던 사업자가 금전을 차용하면서 대여자에게 자금난 등에 관하여 고지를 하지 않은 사안에서, “사업자로서 자금조달에 곤란을 겪고 있는 상황이어서 기업을 존속시키려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계속하여 차용하지 않을 수 없는데, 돈을 차용함에 있어서 상대방에게 ‘도산의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알리는 것은 스스로 신용을 저하시켜 사태를 악화시키는 결과가 되므로, 이를 숨기고 거래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만약 이러한 행위가 모두 사기죄로 처벌된다면 일단 경영부진으로 도산할 우려가 생긴 기업은 거의 대부분 그 기업의 존속을 위한 모든 노력을 포기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사업자가 금전 차용 시 도산에 의한 채무불이행의 가능성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태를 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상당히 믿고, 성실하게 계약이행을 위한 노력을 할 의사가 있었을 때에는 사기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2001. 3. 27. 선고 2001도202 판결 참조). /법무법인 바른

인사

- ◆해양수산부 ◇과장급 전보 ▲인천지방해양수산청 해양수산환경과장 정진일
- ◆서울대 ▲중앙도서관장 김명환

부음

- ▲최준일씨 별세, 김흥만·홍정(서울시도시계획본부 과장)·옥봉·옥화·옥연씨 모친상 = 10일 오전 9시30분,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20호실, 발인 12일 오전 6시30분. 02-6910-6920
- ▲허정자씨 별세, 노화남(전 강원도민일보 논설위원·소설가)씨 부인상, 노한솔·윤진·윤아·윤영·윤수·윤이씨 모친상, 김미영씨 시모상, 유용환·옥세훈·임찬수·문득수씨

장모상 = 11일 오전 4시40분께 춘천 호반병원장례식장 5호실(특실), 발인 13일 오전 7시. 033-252-0046

▲ 김순완 씨 별세, 한중용(중평소방서장) 씨 모친상 = 11일 오전 11시, 청주 성모병원 장례식장 특1호실, 발인 13일 오전 10시. 010-3287-9119

▲ 송순복씨 별세, 강상태·수현(㈜파나시아 부장)·춘옥·희경·보경씨 모친상, 김미경씨 시모상, 박무식·이수태(㈜파나시아 회장)·유만진씨 장모상 = 10일 오후 10시, 부산 시민장례식장 MVG실, 발인 13일 오전 7시 30분. 051-636-4444

▲ 홍옥표 씨 별세, 박창근(전 경인일보 이사)·장근(명지대 스포츠학부 교수) 씨 모친상 = 11일 오전 수원성빈센트 장례식장 2층 5호실, 발인 13일 오전 8시. 031-249-

7444

▲ 장천용(전 경인일보 동부권 취재본부장, 전 경기일보 업무국장)씨 별세, 장미경·형일·형철·은경씨 부친상, 최강락(세계여행신문 대표)·김병우씨 장인상 = 10일 오전 8시, 여주장례식장 백합실, 발인 12일 오전 9시. 031-885-1919(대표)

▲ 안대용씨 별세, 전복자·영숙·수호·정호·승호·명자·안종기·안중희씨 부친상, 허광열(고려대병원 의사)·허주열(더팩트 기자)씨 외조부상 = 10일 오후 4시10분, 삼척의료원 장례식장 3호실, 발인 12일 오전 11시 30분. 033-572-1141(대표)

▲ 김희열씨 별세, 손병식(국방일보 편집팀장)씨 모친상 = 10일 오후 9시 30분, 공주의료원 장례식장 특실 3호실, 발인 13일 오전 9시. 041-962-1444-5